

부모가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지원해야 할까

대학 경비에는 수업료를 듣기 위해 지불하는 학비(tuition)와 기숙사와 숙식 비용인 '룸 앤 보드'(room and board), 교과서 구입비,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학생 용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연방 정부 용자와 사설 용자이다. 연방 학생 용자는 사설 용자보다 이자율이 낮고, 빌리는 액수 제한이 있으며, 돈을 갚는 옵션에 융통성이 크다. 일부

연방 학생 용자는 심지어 용자에 대한 이자를 학생이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대학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자녀가 학사 학위를 재정적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학생들은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대부분 학생 및 학부모는 대학을 4년동안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NBC 뉴스에 따르면 대학생 중 4년 만에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이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다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용은 더 불어난다.

둘째, 자녀가 용자 빛 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 용자 빛이 없다면 직업적, 재정적 목표를 성취하는데 남들보다 한발짝 앞서 있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은퇴 플랜에 최대한 적립하는 등 경제적인 목표를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

학생 용자 빛이라는 짐은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 젊은 나이에 학생 용자가 뭐대수일까 싶겠지만, 학생 용자를 보유한 사람의 20%는 50세가 넘어서까지 빚을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가 미국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기관인 '에듀케이션 데이터 이니셔티브' (EDI)를 인용해 설명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대학 학비의 인플레이션은 연간 평균 4.63%였다.

1963년 이후 대학 학비는 약750%나 인상됐다. 대학 경비가 학생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되면서 어떤 부모들은 과연 자녀의 대학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지 고개를 가우뚱하기도 한다.

대학 생활에 드는 경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칼리지는 경비가 매우 저렴하거나 심지어 무료인 곳도 있지만, 4년제 사립 대학은 대체로 비싸다. 공립 대학은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받는데 있어 실속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특히 인스태이트 공립 대학에 진학하면 거주민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인스태이트 공립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데 드는 평균 경비는 3만 7,508달러이다. 반면 4년제 사립 대학에 드는 평균 경비는 15만 564달러로 공립 대학이 훨씬 저렴하다. 그러나 공립대의 인스태이트 혜택은 오직 해당 주의 거주민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학 경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용자의 종류다.

대학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빌리는

겨울 방학, 이렇게 보내라

겨울 방학은 들뜨기 쉬운 시간이다. 연말연시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다. 또, 출다는 핑계로 집에서만 생활하며 액티비티에 소홀해지기 쉽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겨울방학에 해야 할 일들을 소개했다.



■ 9-11학년생

11학년들은 2학기 학업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뭐니뭐니 해도 학업 성적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족한 과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Honor, AP 과목들의 성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개인 과외를 통하여 성적 향상에 힘쓴다. 이 시기는 또한 앞으로 있을 AP 시험에 대비해서 그동안 배운 과목을 정리해 보는 것도 시간을 절약할 방법이다.

9, 10학년도 마찬가지이다. 지피지기면 백 번을 싸워도 백 번 이긴다고 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게 맞다. 1학기 성적을 바탕으로 2학기 학습전략을 짜야 한다. 학원이나 튜터를 통하지 않고도 않고도 부진한 학습을 보강하는 방법이 많다. 칸아카데미 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는 9학년-11학년들에게 이 시기는 액티비티를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그렇다고 경시대화와 논문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맞춤형 액티비티를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액션을 해야 하는 시기다. 아직 액티비티의 틀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학생들은 이 시기를 통하여 앞으로 몇 년간의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활동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SAT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볼 것

인가 말 것인가? 본다면 언제 볼 것이고 몇 번을 볼 것인가? 성적을 올리는 전략과 계획도 짜야 한다.

■ 7-8학년생

무엇보다도 학업이 중요하다. 7-8학년의 성적이 9학년 이후로 그냥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9-11학년학생들처럼 부족한 과목에 대한 만회 전략을 세워야 한다. 칸아카데미 등을 통해 스스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지만 안 되면 튜터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성적이 망가지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

8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계획해야 한다.

이 시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독서다. 독서는 '밥'이다. 매일 먹어야 하는 밥처럼 독서는 일상화 습관화 되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 독서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독서를 습관화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과제다. 독서는 자기주도학습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다. 독서 능력이 낮으면 절대로 학습력이 향상될 수 없다. 이는 성적과도 직결된다. 다시 말해 대학 진학을 위한 필수 요소 가운데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독서이다. 대학 진학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적이기 때문이다.

사진=shutterstock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